

## 한국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역사적 고찰\*

- 科擧시험이 가족·사회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Historical Approach to the Educational Aspirations : The Influence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Kwager' to the Family and Society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朴 惠 仁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ersity

Prof.: Hye Ju, Park

이 연구는 한국 전통사회의 교육열이 오늘날의 교육열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역사적 고찰로서 특히 과거제도가 가족, 사회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관련된 역사자료와 생활자료인 1차자료와 2차자료로 대별되는데 그중에서 여성의 간찰과 구비전승된 규방가사, 서사민요, 무가 등과 현장조사에 기반한 민속자료가 주요자료로 분석되었다. 그리하여 내용분석법과 역사민속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제도의 장악을 통하여 확립된 중앙집권의 관료제와 학문숭상의 전통, 그리고 과거급제를 해야 가능해지는 관리로서의 등용을 주요 가치로 지향하였던 출세주의, 또 가족의 영광은 집안남성의 과거급제라는 점에서 여성들이 내면화할 수 밖에 없었던 가족주의가 적극적인 교육열의 역사적인 뿌리임을 밝혔다. 이러한 전통은 교육기회가 평등해진 현대사회에 여전히 한국인의 의식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학문숭상의 전통 중에서 '수행'을 겸한 학문을 추구한 사림파의 전통은 단절되고, 출세를 목표로 하는 '학벌' 위주의 왜곡된 전통만이 지속되어 과열된 교육열로 표출된다.

### I. 문제의 제기

전통사회의 가치관이 오늘날의 가족, 사회생활의

축을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는 전통사회의 가치관을 교육열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전통사회의 신분유지 및 상승기제였던 科擧시험을 통하여 그 시대의 지배적인 이념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을 고찰하여 고려·조선시대에 가족은 신분상승을 향한 열망을 어떻게 표출하였는가 밝히고자 한다. 우선 전통사회의 과거제도 변천을 살펴보고 그에 대응하는 가족의 전략을 분석하며 특히 가족의

\*이 연구는 199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자유과제) "한국가족의 교육열과 대학입시: 가족적 대책수립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의 일부로서 한국가족학연구회·서울특별시 공동 주최 가정복지세미나(1993. 9. 17)에서 발표한 후 수정, 보완한 것임.

신분유지 및 상승이 남편이나 아들 즉 남성만을 통하여 관철되었던 전근대사회에서, 여성은 남성 가족원의 과거준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고찰하고자 한다. 즉 남성을 뒷바라지하는 여성들의 삶의 전형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가족문화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첫째, 科擧시험의 제도와 관행의 변천을 고찰하고 과거급제에 대한 사회적 의미부여를 의례와 민속관행을 통해 사회사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둘째, 과거시험 응시자 가족원의 대응전략 특히 여성의 역할수행을 교육열과 家族主義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셋째, 전통사회의 교육열과 현대사회의 교육열의 성격을 비교하여 전통문화의 연속과 변화를 논한다.

이 글은 신분제인 전통사회의 과거급제에 대한 열망과 현대사회의 과잉교육열이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를 밝히므로써 시대착오적 관념의 연속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며, 올바른 가족문화를 위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이 무엇인가를 가늠해 보는 시론적 접근이다.

## II. 연구의 배경과 관점

김태길(1986)은 우리사회는, 경쟁을 위한 개인 능력을 길러주는 일에는 역점을 두었으나, 질서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인격함양은 뒤로 돌렸다고 하였다. 높은 향학열을 보이고는 있으나, 문교당국과 교육자들의 철학 빈곤으로 가치관교육에 충분한 관심을 돌리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말로는 정신교육을 부르짖으나 실제로 있어서는 항상 물질적 번영을 갈망하는 욕구에 우선순위를 빼앗겼고, 教育道場의 기풍을 일신하는 실천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김태길, 1986 : 312). 이어서 김태길(1986)은 역사는 연속적인 전개과정이므로, 미래는 현재에 입각하여야 하고 현재는 과거에 대한 투시를 통하여 파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舊韓末과 일제시대의 가치관이 조선조에 연결되어 있듯이, 오늘의 가치풍토는 일제시대의 가치관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손인수

(1980)는 한국인의 교육적 전통의 발굴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특히 人道의 기초로서 孝思想, 행동목표로서의 立志, 가치지향으로서의 선비정신, 인간교육 이념으로서의 誠·敬思想, 인간주체와 본위로서의 東學의 인간관 등이 전통적 교육의식이라고 정리하였다. 한편 이동식(1980)은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면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대교육의 병폐도 어떻게 보면 과거의 병적인 전통의 소산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까지 전통사회의 교육이나 이념에 대한 연구는, 제도사적 고찰이거나(조좌호, 1958 ; 이병휴, 1972, 1974, 1984 ; 이성무, 1980 ; 허홍식, 1981), 아니면 옛날 사상가들의 고전을 통한 훈고학적 해석과 인용에 치중하는(손인수, 1980 ; 정순목, 1970, 1983) 경향이였다. 이런 점에서 사회제도, 가치와의 관련성에서 실제적인 교육과 가족생활을 분석하는 측면은 결여되었다. 한편 왜곡된 교육열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던 1980년대 초에 과열과의 해소를 위한 모색이 있었고(한국교육개발원, 1981) 또 1990년대에 들어와 수험생과 가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한국사회학회 가족·문화연구회, 1992) 전통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실마리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다만 자신과 가문을 빛내기 위한 과거응시자들의 출세욕이 주요인이 되었던 조선시대 ‘과옥’(科獄 : 과거시험의 부정행위로 인한 獄事)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홍렬, 1970)이 전통사회 교육열의 부정적 측면을 밝혀준 연구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문화에 통용되는 상징적 개념은 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통제한다는 전제 하에 전통사회의 상징체계를 분석할 것이다. 사회구성원 개인 속에 내재화된 사회적인 면을 분석하는 데는 문화와 인성론이 유용할 것이다(Linton, 1984). 그리고 가부장적 구조의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의 경험을 여성의 입장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문헌연구를 통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1차 사료, 2차 사료는 물론 관련되는 민속과 민요 등의 구전자료까지 포함시킬 것이다.

### III. 과거시험과 전통사회의 교육열

#### 1. 과거를 통한 중앙집권적 관료사회화

##### 1) 신라의 왕권강화

과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958년(광종 9)이었다. 고려초기에 왕권을 위협하던 武俠的 功臣勢力을 억압하고, 그 대신에 문치적 관료체제를 갖추려고 하였다(김용덕, 1959). 과거제도 실시의 여건은 신라시대에 조성되었는데 신라는 종래의 골품체제로는 통일정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유교를 채택하여 전체적 정치체제를 갖추었다. 육두품 출신들이 왕권과 결탁하여 진골귀족에 대항하여 주요한 정치적 구실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682년 ‘國學’을 설립하고, 788년에 ‘讀書三品科’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학교와 관직이 연결된 초기제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 고려왕조가 왕권강화를 위해 과거를 도입할 때 이미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들이 배출되어 있었기에 과거제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제의 실시는 문치주의적 사회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디딘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골품제에서 관료제도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성무, 1980). 이것은 또한 제한된 신분 내에서지만 귀족 지위 이외에 성취지위가 평가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교육열의 근원과 맞닿아 있다.

##### 2) 고려시대 관학과 왕권강화

고려후기 과거를 통하여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能文能吏의 신흥사대부들이다. 이들은 성리학을 연구, 보급시키는 방편으로 관학을 일으켰다. 먼저 1367년에 성균관을 증건하고 이어 문벌귀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과거시험을 왕이 직접 주관, 왕권강화를 꾀하였다.

##### 3) 조선시대의 양반관료체제

고려말기에 나타난 관료제는 조선말기까지 강력하였다. 양반사회의 구조적 특징은 관료를 충원하는 양반과 중인, 그리고 생산에 종사하는 양인과 노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라말부터 고려·

조선조를 거쳐 중앙집권화는 강화되어 한양을 중심으로하는 중앙집권체제로 지속되었다.

#### 2. 과거를 통한 문치주의와 교육열

##### 1) 문 숭상의 가치

##### (1) 右文左武의 文治主義

고려시대의 과거는 크게 製述科<sup>1)</sup>, 明經科<sup>2)</sup>, 雜科로 구분되었다. 그중에서도 제술과와 명경과는 문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시되었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漢唐儒學의 영향으로 經學보다 詞章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제술업이 더욱 중요시되었다<sup>3)</sup>. 예종 때 武科를 등용한 적이 있었으나 문치주의를 지향하는 문신들의 반대로 곧 혁파되어 고려시대에 文숭상의 단초를 이루었다. 조선조에 들어와 제술과와 명경과를 통합하여 문과로 하고, 다음 해에 무과를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文武兩班 관료체제를 갖추었다. 관료체제가 정비된 후에는 문·무반직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시대 역시 문과가 훨씬 중요시되었다. 1417년에는 新科學法을 제정하여 성균관과 科擧[文科]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生員은 ‘入學의 문’이요, 급제는 ‘入仕의 길’이라 하였다.

##### (2) 무과에 대한 천시

무과는 외적침입을 받게 되자 대량으로 시취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임란 때 한번에 수천명을 뽑았다. 심지어는 각 도에 空名牌를 보내 왜적의 머리 하나를 베어오는 자에게는 公賤과 私賤을 막론하고 급제를 주었다. 한꺼번에 만여명의 합격자를 내는 일이 있게 되어 무과를 萬科라 하였다(이홍렬, 1964). 이에 따라 천민들도 만과에 진출하는 자가 증가되고, 결국 무과는 더욱 천시되어 사대부의 자제들이 외면하였다. 이 전통은 학력위주, 지식

1) 시(詩), 부(賦), 송(頌), 시무책(時務策)이 주요 시험과목임.

2) 『상서(尙書)』, 『주역(周易)』, 『모시(毛詩)』, 『춘추(春秋)』, 『예기(禮記)』가 시험과목임.

3) 『科擧規詩』, 『東詩』, 『東選』과 같은 科文 작성법에 관한 참고서가 발간될 정도임.

위주의 가치로 연결되었다.

(3) 기술직천시

고려시대는 과거제보다 음서제의 비중이 높았고 양인에게 과거응시를 허용하는 범위도 제한된 만큼 중세신분제의 전형을 나타낸다(이성무, 1990). 그리고 잡과만은 보다 하위 신분에게 개방했는데, 이 자체가 기술직을 확대해 온 우리사회의 단면이라 하겠다. 조선조에 들어와 잡과는 醫科·음양과만 남고, 새로 譯科, 吏科가 신설되었다. 역과는 漢語科·蒙語科·倭語科·女眞語科가 각각 설치되었다. 吏科는 뒤에 없어지고 대신 律科가 새로 생겨 조선시대의 잡과는 역과·의과·음양과·율과로 굳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집권사대부들은 土農工商이라는 유교적인 관념에서 기술학을 천시하여 중사하기를 꺼렸다(이홍렬, 1967). 그 결과 기술관 등용시험인 잡과는 중인층의 과거로 전락되었고 기술자들은 匠人으로 천시되었으며, 한국과학의 역사는 전통과 단절된 채(박성래, 1982), 바로 오늘날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인정신의 부재, 과학기술부진을 초래하였다.

2) 학력위주의 科擧와 '교육열'

科擧는 학력을 시험할 수 있지만, 인격이나 덕행은 시험할 수 없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거는 문치주의사회를 이루는 중추적 제도로 활용되었으므로 출세하려면 과거에 합격해야 하였고, 과거에 합격하려면 유교교양과 유교경전을 익혀야만 하였다. 즉 독서인이 되지 않으면 지배층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열'을 자극시켜 발달된 고급문화를 이룩할 수 있게 한 바탕이 된 것이다(이성무, 1990).

3) 士林派의 학문

그런데 16세기 이후부터 양반층이 확대되어가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과거합격 자체는 관리후보자의 자격인정에 불과하였으므로 모든 합격자에게 관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양반이라 하면 관직 이외에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門閥·地閥이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직계조상 중에 내세울 만한 인물이 있는냐는 것이다. 즉 성

리학적 소양과 성취도를 중요시하는 통념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 발전되었다. '士林'이라고<sup>4)</sup> (이수건, 1979; 이병휴, 1984) 불리는 이들 儒林은 실제 정무에는 관계하지 않았지만 여론을 형성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유교이념을 내면화한 이들 사람과들은 기회가 닿으면 나아가 정치에 참여하되 그에 연연하지 않았고, 항상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고양시키는 데 가치를 두고 학문에 매진하여 실제로 관직에 있는 세력들을 견제한 점에서 오히려 그 적극성과 실천성을 확인할 수 있다(정순목, 1983). 이와같이 양반은 일정한 사회경제적 기초가 확립된(이수건, 1990) 신분으로 학문과 수행을 겸하였다.

3. 신분사회의 폐쇄성과 출세주의

1) 과거 응시자격의 폐쇄성

고려시대에는 원칙적으로 良人이라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다. 향리자제들이 과거를 통하여 중앙진출이 늘어났고(조좌호, 1958) 특히 免役 및 신분상승이 늘어나자, 고려말에는 향리의 세 아들 중 한 명만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제를 가하였다. 그리고 조선조에는 양인 이상의 신분에 개방하면서 실제로는 비양반에게는 제한하였다(이성무, 1980).

2) 신분의 위세 강화

생원·진사시와 잡과의 시험에 붙으면 '合格'이라 하였고, 문·무과에 붙으면 '及第' 또는 '出身'이라 하였다. 합격자 발표시에는 '창방의'라는 의식을 근정전에서 실시하며 합격증서인 홍패를 주었다. 이어 국왕으로부터 御賜花[帽花]와 蓋[日傘] 및 酒果를 하사받았다. 또 恩榮宴이라 하여 조정에서 축하연을 베풀었고 급제자들은 국왕에게 사은례를 올리고, 文廟에 謁聖禮를 행하였으며, 일종의 시가행진인 遊街<sup>5)</sup>가 3~5일간 허락되었다. 지방 출신 급제자들은 榮親儀라 하여 고향에 내려갈 때 수령, 향리들의 환영을 받고 유가하였다(이성무,

4) 在野에 있는 山林이라고도 하고 士類, 士林士大夫之林, 士大夫群, 在地兩班群을 뜻하는데, 이들은 여론을 움직이는 핵심이 되었다.

5) 『京都雜志』 卷之一 遊街

1990). 이와같이 과거급제는, 전국가적인 지지와 환호를 받는 강화작용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바의 목표가 되었다. 그런데 임란후 국가기강이 헤이해지면서 과거 운영도 공정하지 못하게 되어 여러 폐단을 자초하였고<sup>6)</sup>, 이에 따라 획기적인 개혁론이 등장하였으나(이병휴, 1972), 극단적인 출세지향주의는 강화될 뿐이었다.

### 3) 관직추구의 출세욕과 士風의 타락

조선시대에 오면 국가의 중추적 인물들이 과거를 통하여 등장하였고, 국가의 기강은 바로 과거제도의 올바른 시행에 달려 있는 만큼 停擧·拔擧·罷擧·罷擧場의 처벌을 가하여 공정성을 엄격히 지켜왔다. 그러나 임란 이후 갖가지 부정행위가 나타났다. 1699년 기묘과옥에는 부정행위가 합격자 발표 뒤에 드러나게 되어, 관련자 수십명이 투옥, 문초를 받고 과거는 파방되었다. 1712년 임진과옥에는 시관이 친구의 아들과 친척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합격시켰는가 하면, 암표를 사용하여 합격시키는 등의 부정행위가 드러나게 되어 관련자들이 처형당하였다. 이러한 科擧시험 부정행위는 관리들이 권력, 금력에 눈이 어두워 소임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지만, 자신과 가문을 빛내기 위한 지원자들의 무분별한 출세욕이 더 큰 원인이었다.

그후 수시로 실시하는 과거시험이 생겼는데, 과거를 자주 연 까닭은 科擧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양반층가에 따라 고조된 ‘관직추구열’에 부응한 까닭이었다. 이에 과거급제자가 많아지자 권세가에 접근하여 구직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정권타도에 의한 관직획득에 혈안이 되기도 하여 士風이 타락되어갔다.

## 4. 가족주의의 뿌리

### 1) 과거시험절차에 나타난 가족주의

수험생들은 시험 전 錄名所에 자신의 성명·본관·거주와 父·祖·曾祖·外祖의 관직·성명·본관을 기록한 四祖單子와 6품 이상의 調官이 署押한 일종의 신원보증서인 保單子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을 가족, 친족의 신분과 함께 파악하는 제도로서 전대부터 지속되어온 이른바 ‘가족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음서는 혈통에 의하여 관리를 뽑는 방법이요, 과거는 능력에 의하여 뽑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sup>7)</sup> 科擧가 단순히 개인 능력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었다는 측면을 반영한다. 더군다나 어떤 관직을 맡는가에는 더욱 가족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예문관에서는 신급제자의 합격순위에 따라 성명·본관·거주 및 부친의 관직과 생부·양부의 관직, 형제의 이름 등을 적은 문과·무과 방목<sup>8)</sup>을 만들어 중외에 반포하였다. 同榜한 합격동기생은 ‘同年’이라 하여 ‘동년계’를 조직하는 등 친하게 지냈다<sup>9)</sup>. 이것은 전통사회의 學緣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급제자의 부모를 초대하여 주연을 베풀고, 심지어 다섯 아들이 급제한 五子登科의 경우 부모가 살아 있으면 歲米 20석, 세상을 떠났으면 追敘하는 것에도 가족주의가 반영된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과거급제한 자가 집 앞이나 조상 산소에 속칭 ‘華柱’라는 돌기둥을 세우는 습속이 있었다. 과거급제자가 자기과시의 가문의 행운을 빌기 위하여 세우는 일종의 솟대이다. 農旗 모양으로 평털이나 벗짚을 꼭대기에 장식하고 형짚을 둘러 만들거나, 꼭대기에 새나 용을 그리고 붉은 칠을 한 것이다(이필영, 1990)<sup>10)</sup>. 과거급제 솟대 역시 신앙대상이 되어 가족주의를 강화시켰다.

7) 일반적으로 관리등용방법은 自薦에 의한 방법과, 他薦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자천에 의한 방법은 科擧와 取才가 있었고, 타천에 의한 방법에는 蔭劄와 薦擧가 있었다.

8) 문과, 무과 방목을 龍虎방목이라고도 하고, 小科 방목은 司馬방목이라고 함.

9) 李穡 『牧隱詩藁』 卷29.

6) 隨從(시험지 베끼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감)의 弊, 早呈(응시자가 많으므로 일찍 제출한 시험지가 유리하다는 것이 알려진 뒤, 서로 먼저 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함)의 弊, 挾書(책이나 문서를 끼고 시험장에 들어감), 借述(대신 기술하여 작성함), 赫蹄(시험관과 수험생이 미리 암표를 정해 놓았다가 답안지에 표시함), 易書用奸(시험관 서리를 매수하여 답안지를 고침), 竊科(합격한 답안지를 훔친 후 내 이름을 붙임)등의 형태가 있었음(이홍렬, 1970).

## 2)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강화

조선시대에 법제상으로는 천민이 아니면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양반신분이러해도 중죄인의 자손이거나, 범죄를 저질러 관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판정을 이미 받은 자, 再嫁女 및 失行婦女의 자손, 庶孽인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었다. 신분상승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과거제를 통하여 再嫁禁止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여성의 貞節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켰다.

## 3) 가족 및 여성의 대응전략

### (1) 가족주의의 가치지향

조선조 여성은 개인으로서의 입지를 잃게 되고 수직구조의 가족생활(이광규, 1975)에서 자신의 삶을 구현하는 길은 자식을 통하는 길밖에 없었다. 즉 어머니들은 아들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곧 자신이 커지는 것이고, 자신의 권력이 세어지는 것이므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뒷바라지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노력은 ‘情’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녀의 성공이라는 ‘보상(報償)’을 기대하는 행동으로서 자기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내야 할 과업 또는 일종의 책임에 가까운 것이었다<sup>11)</sup>. 이런 양상은 지배계층의 여성일수록 강하였다. 왕비의 신분에서 일가친척의 科擧 예비고사 합격을 듣고 보낸 편지글은 다음과 같다. 「…백천은 初試를 하니 그 기쁘기를 어이 헤아리리. 會試 아직 멀었으나 이제부터 용심이 많으니 정작의 어이할고…」<sup>12)</sup> 왕비가 본고사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음 사례는 객지에 공부하러 간 아들 흠구에게 보낸 전주 이씨의 글이다. 「…무사히 들어간 일

기특하며 너를 떠나보내고 집이 다 빈듯 허우럭 날포되니 암암 그림기 간절하나 네 공부를 위하여 들 거시니 부디 노지말고 착실이 하고 작난 말아…」<sup>13)</sup> 이어서 손위동서가 손아래 동서에게 보낸 간찰이 있다. 「…사랑에서 과거시험에 애만 쓰고 번번이 허송하시고 내려오셔서 적패하신 모양 절박하고…」라고 하며 낙담하고 있다<sup>14)</sup>. 세상도 하 귀치 아니하오니 어찌하면 좋은가고 동서에게 남편의 낙방을 호소한다. 이 글을 쓴 거창신씨는 전주 이씨의 子婦이자 맹흠구의 夫人이다. 결국 집을 떠나 의지에 가서 과거시험준비를 하였건만 어머니, 부인의 기대를 저버린 사연인데, 여기에 두 여성의 삶이 연관된다.

특히 유교이념을 내면화한 양반부녀자들의 생활 세계는 규방가사에 나타난다(권영철, 1980). 그중의 하나인 福善禍淫歌를 보면 嫗家가 名門이지만 淸貧하며 서방님은 아는 것이 글뿐이다. 여성의 노력으로 빈한을 이기고 치부하게 되어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게 되는데 이야기의 절정부는 남편이 장원급제하여 당도하는 대목이다. 「…우리존구 청여장을 들너집고/황황이 드러와서/날을 보고 하난말삼/이변과거 즉일찰방/나의 남편 내아달이/장원급지 하였스니/이른 경사 또 있나나…」 苦盡甘來라고 남편은 평양감사까지 승진하였다. 그러나 사대부 여성들의 바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클적에는 아부쫘고/시집가면 가장쫘고/가장이 늘거지면/자식을 쫘난 것이 삼종지의 이것이라」고 노래했듯이 「아들형제는 진사급제로/가문이 혁혁하다」고 할 때 비로소 가사는 끝난다. 아들의 급제는 사대부 여성 현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러므로 이제껏 칭송되어 온 여성의 헌신은 ‘정성’이나 ‘모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구적인 성격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영험한 비석을 갈아마시면 급제를 한다는 속신이 관행될 정도였다<sup>15)</sup>.

10) 오늘날 대학입사에서 수석합격한 학생의 출신고등학교 입구, 그리고 아파트단지 큰 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플래카드(“축! ○○대학 수석합격” “○○를 빛낸 ○○○”)와 비교해 볼 만하다.

11) 한석봉의 어머니는 엄격한 가르침으로 자식의 교육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그녀는 결코 전통사회에서 미덕으로 내세운 ‘자애로운 어머니(慈母)’가 아니다. 자식을 감동시킬 정도로 술선수범한 훌륭한 어머니지만 떡장사를 하는 그녀의 삶의 가치가 아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12) 仁宣王后가 淑明公主에게 보낸 간찰의 일부임. 출처는 김일근(1988, 200)의 자료편이며 필자가 부분 발췌함.

13) 孟祖遠夫人(순조 1~헌종 14) 전주 이씨가 아들 欽耆에게 보낸 글(김일근, 1988, 200)

14) 孟欽耆夫人 거창신씨의 간찰(김일근, 1988, 235)

자녀의 성공에 대한 열망은 전통사회 여성들의 정서적 지주의 기능을 한 巫歌에도 반영되었다. ‘과거풀이’<sup>16)</sup>를 보면(이두현, 1989) 사설의 절정은 삼일유가하고 승지 참판에 오르는 부분이다. 과거 급제하여 금의환향한 후 동네잔치를 벌이고 최고 벼슬에 오르는 아들의 출세는 여성들이 기대하는 최고의 바램인만큼 巫歌 속의 황홀경으로 들어가 위안을 얻고 대리만족을 하면서 소원풀이, 한풀이를 했던 것이다. 무가뿐만 아니라 저승길을 다져주는 ‘덜구소리’<sup>17)</sup>(강원희, 1992 : 88)에도 같은 바램이 담겨 있다. 이처럼 아들을 도구화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전통은 남아선호의 가치를 스스로 강화시켰다(조혜정, 1982). 오늘날 자녀의 인간적인 고통조차 외면하면서 오직 일류대학을 강요하는 일부 여성들의 집착이야말로 ‘정성’이라기보다는 수단적인 측면이 내재된 것이라고 보인다.

## (2) 가족주의와의 갈등과 좌절

전통사회 서민여성들은 농사와 길쌈이라는 노동의 연속이었다. 그들이 물레를 돌리며 부르는 노래(최승범, 1992)가 있다. “외쪽비쪽 도는 물레/어서 바빠 돌아가소/오늘밤이 다 되어도/서재도령 아니 오네/進士大科 못할라면/밤서재랑 그만두소.” 이 노래에는 과거준비에 여념이 없는 연인을 기다리는

여성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과거에 매인 남성이, 어리석어 보이고 야속하기도 하다. 科擧지상주의의 가치 아래 여성은 갈등하며 그렇게 매달릴 게 무어나고 도전한다.

또한 신분과 지위가 낮고 평민적 행동양상을 지니며 학식이 없는, 그리고 직접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부른 노래가 서사민요인데(조동일, 1979 : 54) 이중의 하나인 “베틀노래”에도 科擧는 등장한다. 남편의 과거가 소재이다. 요약하면 “科擧 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남편이 죽어서 돌아왔다”<sup>18)</sup>의 두 단락이다. 서사민요의 구조는 대부분 고난-해결의 시도-좌절-해결의 네 단락으로 이루어졌는데(조동일, 1979 : 161) 이 베틀노래는 두 단락뿐이다. 과거 간 남편을 기다리며 고난을 견디고 있는 여성으로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베를 짜는 것 말고는 없다. 급제하면 입힐 옷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부인 앞에, 남편 屍身이 돌아왔다. 기다림 이외의 해결할 시도가 없었듯이 좌절 이후에도 여전히 좌절이다. “...내가오늘 당해보니 대문밖이 저승일래 죽고저라 죽고저라 이 자리에 죽고저라...앵두같은 이젓꼭지 아기한번 못먹이고 죽자니 원통하고 살자니 고생일세...” 이들의 고난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생활현실에서 오는 끈덕진 것이기에 좌절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요를 부르는 여성들은 실제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런 상황에 몰입되지 않는 거리를 확보하고, 슬픔을 차단해서 운명을 인정하지 않는 항거의 자세를 다진다(조동일, 1993 : 278).

## IV. 갑오경장 이후의 왜곡된 교육

### 1. 신분의식의 존중과 평등한 교육기회

- 15) 경북 군위군 고로면 인각사에 왕희지체로 집자한 『일연선사비』가 있는데 비면의 글자가 심하게 마모되어 있다. 바로 이 비문이야말로 훼손된 문화재로서의 의미보다 과거급제를 열망해 온 전통사회의 교육열이 빚어 놓은 생생한 증거물로서 조명될 만하다.
- 16) “이 집 가중에 어린 아기 한두 살, 세 살, 네 살, 삼사인 자랄 적에 오이붓듯 일취월장 잘자라니 글이나 한번 읽혀보자. 천자 한권 읽은 후에 시전, 서전에 논어 맹자 사서삼경을 다 배우니 필법은 왕휘지요... 일필휘지 선장하니 서서관 보시고 고성대독으로 호명한다... 삼일유가 마친후에 본택으로 돌아와서 선산에 소분하고 부모님전에 배알하니 이런 경사 또 있는가.... 한림학사 다지내고 승지참판 되었다가...(자료 : 김수남(1989). 풍년을 비는 농경의례 소놀이굿. 열화당. pp95-96)
- 17) “? 아들형제 팔형제를 줄줄이야 낳아서러 알성 급제 부귀영화 연년대로 누리시오 어덜구요...” (경북 예천 통명농요보존회 간행자료집에서 필자가 골라 인용함)

18) “...저기가는 저선비야 우리선비는 안오든가 오기 사 오데마는 칠성판에 실려오데 아이고답답 내일 이야 아이고답답 내일이야 일산델랑 어데두고 영전대가 앞을서노 아이고답답 내일이야 알성급제 하여슬랑 마산살림 하자더니 아이고어어구 내일 이야...” <출처는 조동일(1979 : 219.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의 자료편에 게재된 9편 중에서 전달이 쉬운 것을 필자가 자의로 선택한 것인데 영양군 일월면 가곡동 남재근의 구술자료임.)

신분제폐지에 대한 민중의 요구와 사회변화에 따라 庶孽許通, 戶布法 실시, 奴婢世傳法 폐지와 같은 신분법제가 나오게 되었다(이준구, 1993). 갑오개혁이야말로 신분차별이 없는 '개화세상'을 맞이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신분제도가 폐기되었다고 하여 그 遺制라든지 잔존의식이 약해진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신교육실시가 요청되었다. 근대학교의 출현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부각시켰고 바로 이 시점이 이제까지 신분차별의 제도 속에서 소외되고 좌절을 겪어온 하층신분들도 교육을 매개로 경쟁하게 되는 이른바 '교육열의 대중화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다.

## 2. 관료층원의 폐쇄성·연고성

개항 이후 근대적 교양과 전문지식을 가진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균관을 근대적 학교로 개편하는 동시에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근대적 관리등용법을 제정하였다. 選舉條例와 銓考局條例가 바로 그것이다. 의정부가 5부 8도에 관리희망자를 추천하되 특별로 인원수를 정하였다. 각 장관이 성명·연령·본관·거주지 등을 기록하고 어느 곳에 적합한지 選狀을 주어 전고국으로 보내면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에 의하여 선발, 배치한다. 보통시험은 국문·한문·산술·내국정략·외국사정이고, 특별시험은 전문분야에 대한 것이었다. 새 관리등용법의 고시과목은 시대변천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이를 배울 기회가 적었던 지방민은 불리하였다. 신분제를 폐지한 뒤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고는 하였으나 종래와 같은 연고성과 폐쇄성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중앙집권적인 관료제의 전통이 오랫동안 서울 위주로 시행된 만큼(김영모, 1982), 지방을 차별하는 관행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 3. 일제강점기 교육

'內鮮一體'·'同祖同根'등을 내건 일제의 교육정책은 한글폐지에까지 이르렀으며, 황국신민을 목표로 하였다. 학교교육을 1938년에는 전시체제화하고 1943년에는 군사체제화하여 전쟁수행의 도구로 만들었다. 여성들은 이른바 정신대로, 젊은

학도들은 학병으로 끌려갔으며, 교육의 황무지시기였다.

## 4. 미군정기의 교육

미군정기에 한국교육은, 민족교육의 정통성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일제시 부일 또는 친일했던 교육관료들이 미군정과 일치된 입장을 지향함으로써, 교육계를 주도했기 때문이다(한성진, 1981). 이들은 외국유학을 바탕으로 미군정을 지원했고 더욱이 친일했던 교육관계 인사들이 재등장하여 교육체제형성에 참여함으로써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미군정기 교육은, 식민지 잔재의 권위주의적 관료적 성격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중적 성격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교육의 기반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V. 맺음말

우리나라의 전통사회를 과거제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중앙집권적 관료제', '문승상의 전통', '출세지향주의', '가족주의'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오늘날 균형을 잃고 비대해진 서울의 과밀화와 해소되기 어려운 서울·지방과의 현저한 격차는, 오랜동안 지속된 '중앙집권화'의 역사적 소산이라 하겠다. 국가주도의 대학입시 역시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데 중앙집중적이고 도시중심적인 교육을 방치한다면 교육을 위한 '한양행'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둘째, 과학기술이 단절되고 匠人정신이 약화된 것은 武와 技術을 천시한 '文승상 풍토'의 소산이다. 한편 문 승상의 전통에서 배태된 바람직한 '교육열'은 도덕과 인품을 겸비한 사림파를 형성하였으나 교육풍토의 왜곡으로 단절되었다.

셋째, 科擧급제에 대한 권위를 더욱 강화시켜 그 열망을 내면화시킨 것이 바로 '출세지향주의'이다. '암행어사 출두'식의 문제해결 방식은 오늘날 한국인의 의식 깊숙히 자리한 권력지향적인 출세주의로 연결된다.

네째, 남성가족원은 집안대표로 科擧라는 決戰의



강에 나아갔고 사회적인 출구를 허용받지 못한 여성들은 '가족주의' 과업에 매진하였다. 높은 신분의 여성일수록 더욱 높은 '교육열의 전담자'였으며 서민여성은 과거급제를 이상화할 뿐 현실을 직시하여 '가족주의'에 덜 매몰되었다.

한편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학력위주의 교육풍토'야말로 과거제가 지닌 폐단과 일맥상통한다. 분권화를 거부하는 영도자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권력지향적인 출세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인 황금만능주의와 교차되어 기형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한편 가족주의는 시민의식 내지 공동체의식과 유리된 채 '이기적 가족주의'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으니 전통의 부정적인 속성을 이어 온 측면이 두드러진다. 무엇보다도 문승상의 전통에서 활발했던 학문과 수행이 단절된 것은<sup>19)</sup> 광복 이후 교육의 왜곡상에 드러나듯이 우리민족의 주체적인 교육을 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한다고 본다. 한편 억압받아 온 피해계층은 계층상승의 욕구가 높아진 만큼 평등하게 개방된 교육의 기회를 통해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또한 여전히 사회적 출구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은 '자녀의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자신의 삶의 출구를 건강하게 갖지 못한 남성들조차 '출세주의'의 욕망을 자녀에게 세습시키므로써 왜곡된 교육열에 가담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학문·수행의 길이 우리 전통의 계승이고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라면 왜곡된 교육방향을 바로잡는 일이 선결과제라 하겠다.

19) 근래 몇 십년동안 정통성을 상실한 몇몇치 못한 권력이 복종이 아닌 비판, 모방이 아닌 창조를 무엇보다도 두렵게 여기고, 외세추종이 선진화를 위한 최상의 방안이라는 착각을 주입시키면서, 대학을 무리하게 지배하고, 학문을 어거지로 다스려 온 탓에 학문의 위기가 심각해졌다(조동일, 1993 : 5). 지금 경제를 살리고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개혁해야 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드는데, 잘못된 주장은 아니지만, 더욱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문을 살려 교육을 살려야 한다(1993 : 4).

## 참고 문헌

- 1) 국조방목(1971). 서울 : 국회도서관.
- 2) 연려실기술(1989).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 3) 영남문집해제(1988). 대구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4) 한국문집해제 -영남지방편- I · II · III(1983). 대구 :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 5) 권영철(1980). 규방가사연구. 서울 : 이우출판사.
- 6) 김영모(1982). 조선시대배층연구. 서울 : 일조각.
- 7) 김용덕(1959). 고려 광종조의 과거제도문제. 중앙대학교논문집 4, 141-152.
- 8) 김일근(1988). 諺簡의 研究 -한국書簡의 研究와 資料集成-.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 9) 김재은(1990). 한국의 교육병리. 정신문화연구 13(3), 53-66.
- 10) 김태길(1986). 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I. II. 서울 : 문음사.
- 11) 박성래(1982). 한국과학사. 서울 : 한국방송사업단.
- 12) 손인수(1980). 한국인의 전통적 교육의식과 현대교육의 제문제. 전통적 가치관과 새 가치관의 정립.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43-185.
- 13) 송준호(1976). 조선시대의 과거와 양반 및 양인(I). 역사학보 69, 101-135.
- 14) 이광규(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 일지사.
- 15) 이동식(1980). 전통적 가정윤리와 현대가정의 제문제. 전통적 가치관과 새 가치관의 정립.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3-141.
- 16) 이두현(1989). 풍년을 비는 농경의례 소놀이굿. 김수남. 양주 경사굿소놀이굿. 서울 : 열화당.
- 17) 이병휴(1972). 다산 정약용의 과거제개혁론. 동양문화 13.
- 18) 이병휴(1975). 여말선초 관학의 실태와 과업교육. 동양문화연구 2, 105-126.
- 19) 이병휴(1984). 조선전기 기호사립과연구. 서울 : 일조각.
- 20) 이성무(1975). 조선초기 문과와 응시자격. 국민대학논문집 9, 75-100.
- 21) 이성무(1980). 조선초기 양반 연구. 서울 : 일조

- 각.
- 22) 이성무(1990). 과거. 한국역사학회발표논문자료집 63-142.
- 23) 이수진(1979). 영남 사립파의 형성. 대구: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 24) 이수진(1990). 양동의 역사적고찰. 인문과학연구총서 1. 대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6-98.
- 25) 이준구(1993). 조선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서울: 일조각.
- 26) 이필영(1990). 솟대. 서울: 대원사.
- 27) 이홍렬(1964). 만과설행의 정책사적추이. 사학연구 18, 207-246.
- 28) 이홍렬(1967). 잡과시취에 대한 일고. 백산학보 3, 323-377.
- 29) 이홍렬(1970). 文科設行과 疑獄事件. 白山學報 8, 299-324.
- 30) 정순목(1970). 한국서원교육제도연구. 대구: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 31) 정순목(1983). 조선조시대의 교육사상과 사회적기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편. 교육과 사회 6. 서울: 민중사.
- 32) 조동일(1979). 서사민요연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33) 조동일(1993). 우리 학문의 길. 서울: 지식산업사.
- 34) 조원래(1977). 실학자의 관리등용법개혁론연구. 백산학보 23, 263-304.
- 35) 조좌호(1958). 여대의 과거제도. 역사학보 10, 125-165.
- 36) 조혜정(1982). 전통적 경험세계와 여성.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총서 82-6.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3-140.
- 37) 최승범(1992). 한국의 소리를 찾는다. 서울: 예음.
- 38) 최승희(1989). 조선후기 「幼學」·「學生」의 신분사적 고찰. 국사관논총 1집. 국사편찬위원회.
- 39) 한국교육개발원(1981).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과열과의 해소대책.
- 40) 한국사회학회 가족·문화연구회(1992). 대학입시와 가족. 제 1회 심포지움 발표요지.
- 41) 한성진(1989). 미군정기 한국교육엘리트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연구 2집. 서울: 푸른나무.
- 42) 허홍식(1981). 고려과거제도사연구. 서울: 일조각.
- 43) Hunt, R(1967). Personalities and Culture. The National History Press.
- 44) Linton, R(1984). 문화와 인성. 전경수 역. 현음선서 13. 서울: 현음사.